근대 한글 사료, 세계문화유산 '노크'

국가유산청은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와 '내방가사'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식과 적격성을 검토한 후,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 여성들이 창작한 한글 문학. 국가유산청

근대 한국어 사전·내방가사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 말모이 연구는 보물 지정도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국제 자문위원회 심사 거쳐 2027년 최종 등재 여부 결정

우리 문자인 한글을 널리 사용하고, 지키려 한 노력을 담은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와 '내방가사'를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에 올리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자료는 앞으로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받게 된다.

형식 요건과 적격성을 검토한 뒤, IAC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는 근대 국어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 '말모이'의 원고 1책과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전신)가 1929년부터 1957년까지 작성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 18책을 포함한다.

말모이 원고는 독자적인 사전 편찬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로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려 한 노력의 산물로 여겨진다. 2020년 보물로 지정됐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본 경찰에 압수됐다가 해방 이후 찾은 역사가 깃들어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식민 지배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이자 언어생활의 변천을 알려주는 생생한 자료"라고 설명한다.

두 자료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모국어 운동의 산물로도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한자 중심에서 한글 중심으로의 언어생활 변화와 문맹 퇴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

유산명	등재년도
1 훈민정음(해례본)	1997년
2 조선왕조실록	
3 승정원일기	2001
4 직지심체요절	
5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6 조선왕조 의궤	
7 동의보감	2009
8 일성록	2011
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10 난중일기	2013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14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16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17 4.19 혁명 기록물	2023
18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9 제주 4·3 기록물	2025
20 산림녹화 기록물	

연합뉴스 자료: 유네스코, 문화재청

'내방가사'는 여성의 공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한글 문학이다.

조선 후기 여성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을 한글로 적으며 전승돼 왔다. 이번에 등재 신청한 자료는 1794년에서 1960년대 말까지 창작된 가사 567점을 아우른다.

내방가사는 당대 여성의 활동과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크다.

예를 들어 1794년 연안 이 씨가 지은 '쌍벽가'는 아들과 조카가 과거에 급제해 느낀 희열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공헌을 은근히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중 조선말 큰사전 원고(위)와 말모이 원고(아래). 국가유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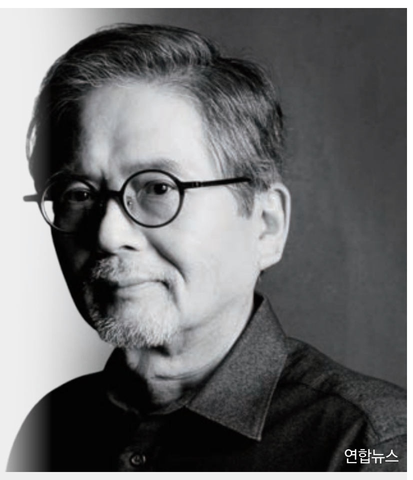
여성들끼리 모여 봄놀이를 즐겼던 경험이나 새로운 문물이 밀려들던 시기에 여성이 겪은 변화, 가족에게서 느끼는 서러운 마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문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창작과 전승의 주체로 활약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등재한 뒤 올해 제주 4·3 기록물·산림녹화 기록물을 추가해 총 20건을 대표 목록에 올렸다. 연합뉴스

박물관 전문가 이영훈, 이제는 연극 무대 선다



연합뉴스

연극 '바람의 용사들' 주연 연극인으로 46년 만에 복귀 내달 12일 한예극장서 공연

국립청주박물관장, 국립부여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그리고 연극배우.

박물관에서 평생 일해온 '박물관 사람'의 이력에 하나가 더해졌다.

신라 천 년의 고도, 경주에서 황남대총·금관총·천마총 등 옛 무덤을 주제로 한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고 굵직한 고고 발굴 현장에서 활약한 전문가로서는 이례적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주인공은 이영훈(사진)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다.

2016~2017년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을 맡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그가 다음 달 연극 무대에 오른다.

경기고 연극반 출신으로 구성된 화동연우회의 32번째 정기 공연을 통해서다.

이 전 관장은 프랑스 극작가 제랄드 시블리라스가 쓴 희극 '포플러에 부는 바람'(Le Vent des Peupliers)을 각색한 '바람의 용사들'에서 참전용사 필립 역을 맡는다.

이 전 관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화동연우회의 정기 공연 무대에 오르는 건 처음"이라면서 "야단맞으면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웃었다.

쑥스러운 듯한 말과는 달리, 이 전 관장은 오래전부터 연극계에서 이름난 인사다.

경기고와 서울대 재학 시절 꾸준히 연극 활동을 했고 국내 연극계에 창작극 바람을 불어 넣은 극단 연우무대가 1977년 첫 발걸음을 내디딜 당시 주축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연극하는 친구'라는 뜻의 연우무대는 창단 공연 '아침에는 늘 혼자예요'를 시작으로 '장산곶매' '한씨연대기' '칠수와 만수' 등 다양한 창작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 전 관장은 연우무대 활동 초기인 1978~1979년 '아침에는 늘 혼자예요' 등 주요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건 1979년. 그는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소속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하며 박물관과 연구 활동에 전념했다.

이번 무대는 연극인으로서 46년 만의 복귀인 셈이다.

이 전 관장은 "46년 만에 무대에 또 오르게 됐다. 연기도 쉽지 않고 대사를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통화 내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보다는 화동연우회와 이번 공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전 관장은 1959년 초가을 프랑스의 한 참전용사 요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 노인의 '탈출 대장정'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은 앙리(최용민 분), 구스타프(이우종), 필립 세 사람이 일상을 벗어나 요양원 탈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흥미롭게 또 날카롭게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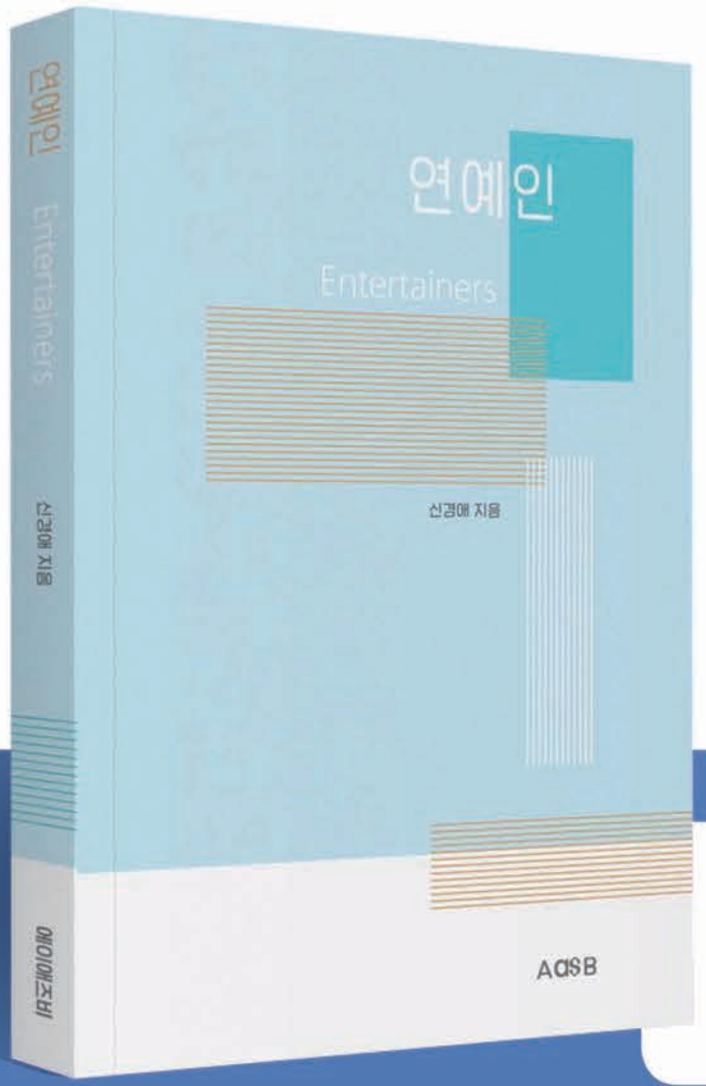
원작을 영어로 번역·각색한 작품 '영웅들'(Heroes)은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한 뒤 이듬해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최우수 신작 코미디 상을 받은 바 있다.

공연 관계자는 "일상적 대화와 상상 속 '탈출 계획'이 중심"이라며 "그 속에 인생, 가족, 기억, 죽음, 자유 등에 대한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동연우회는 1991년 창립한 이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세계적인 명작을 골라 꾸준히 공연했던 만큼 이번 공연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용사들'은 다음 달 12~2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공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게'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